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9. 13.(일) 12:00 배포 2026. 9. 13.(일) 10:00

구윤철 부총리, 「한-우즈벡 지방정부 협력 포럼」 축사

- 지역의 강점을 살린 '대체 불가능한 협력' 모색 필요성 제시 -

- 한-우즈벡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투자·일자리 창출 등 성과 창출 기대감 표명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월 11일(금) 서울**에서 개최된 「**한-우즈벡 지방정부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협력 확대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였다.

행사에는 **양국 중앙·지방정부 주요 인사**와 **기업인, 학계·민간 전문가** 등 **150여명**이 모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산업, 투자,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부총리**와 우즈벡 **페르가나·타슈켄트·나망간** 등 **다수 주지사·부지사**가 참여하여 **한-우즈벡 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 한-우즈벡 지방정부 협력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6.9.11(금) 11:00~16:40,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
- **참석자** : **(한 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우즈벡) 잠시드 호자예프(Jamshid Khodjaev) 부총리, 하이룰로 보조로프(Khayrullo Bozorov) 페르가나 주 주지사, 조이르 미르자예프(Zoyir Mirzayev) 타슈켄트 주 주지사, 샤브카트 압두라자코프(Shavkat Abdurazakov) 나망간 주 주지사 등

  * 우즈벡의 전체 14개 광역 행정단위 가운데 9개 지역 참여

구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이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인 상황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논의하는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격랑**을 함께 건널 **최고의 동반자**'로서 **한-우즈벡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우즈벡**의 **지방정부**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협력**'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지역 주도의 **성공 모델**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지방정부**가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개선**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투자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결실**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즈벡 **호자예프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양국 교역이 연간 20억불에서 50억불 규모로 확대되기 위하여, 자원, 디지털전환, 인프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공급망**, **첨단산업**, **인프라** 등 유망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경제협력 성과**가 양국 각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교은 (044-215-7740)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inhwan89@korea.kr)
				허창혁 (changhyukheo@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제1차 한-우즈벡 지방정부 협력 포럼」 부총리 축사

1 인사 말씀

아살라무 알라이쿰(Assalomu alaykum)!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먼저,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의 개최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압두살로모프 대사님,
그리고 귀한 걸음 해 주신
호자예프 부총리님과 주낙영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시며
지방 균형발전이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임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지방정부가 국내를 넘어 양국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협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고 뜻깊습니다.

2 글로벌 경제 전환기와 한-우즈벡 협력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오디세이'를 보셨습니까?

삼천년 전,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폭풍우와 역경을 극복하는 여정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분절화,
AI 혁명, 공급망 재편 등
거친 격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복합 리스크를 관리하며
반도체·AI 등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 주도 균형성장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환의 격랑은
결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가족과 동료와의 신뢰를 통해 역경을 극복했듯이,
우리에게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제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호자예프 부총리님과 여러 번 만나면서 느낀 것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고의 동반자'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양국은 고대 실크로드부터 이어진 천년의 유대를 넘어,
1992년 수교 이후 대우 자동차 공장,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등 산업협력을 통해
굳건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나아가, 양국이 앞으로 핵심광물 등 자원협력,
보건협력, 인프라협력 등 상호 win-win하는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3 한-우즈벡 경제협력방향 : 중앙을 넘어 지방으로

이에 한국 정부는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①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②AI·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협력,
③교통·물류, 인재 양성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기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고 뱃길을 연다면,
그 바다 위에서 실제로 배를 띄우고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은
바로 양국의 지방정부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페르가나주의 경제특구 협력,
경상남도와 타슈켄트주의 산업인력 협력,
충청남도와 나망간주의 스마트 농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지역 현장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협력'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지역 주도의 성공 모델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 맺음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는 저에게
본인도 주지사 출신이라 말씀하시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한국 정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양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결실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항해가 거센 도전을 헤치고
공동 번영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타 라흐맛(Katta Rahmat)!